

#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그성대한 막을 열다!

글·사진: 편집부

**행 사 명 :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09 in Daejeon)

**행사기간 :** 2009년 9월 9일(수)~12(토)

**장 소 :** 대전 KOTREX, D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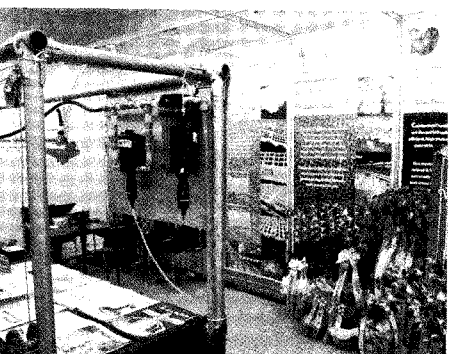
**주 최 :** (사)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양돈협회

**주 관 :**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대전광역시,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사)한국사료협회

**주 제 :** 친환경 축산, 안전한 축산물





‘친환경 축산, 안전한 축산물’을 주제로 한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9월 9일부터 4일간 KOTRA 대전무역전시관(KOTR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장동일 대회장(한국축산환경시설협회장), 이낙연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하영제 농림수산물부 제2차관, 박성호 대전시장,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축산 관련 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올렸다.

대회장인 장동일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축산 농가들에게는 첨단 축산기술에 대한 정보의 장, 축산관련 업체들에게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해외수출판로 확보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은 “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앞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축산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IMF위기, 사료가격 폭등 등 낙관을 잘 견뎌왔다”고 말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축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제품기준으로 총 27개국 185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694개의 부스가 마련돼 축산기자재, 농장 자동화 시설, 동물약품, 사료 및 첨가제 등이 전시되었다.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 장동일 대회장은 지난 박람회와 비교하여 3박4일로 일정을 연장하여 전시시간을 늘이고, 대전무역전시관 뿐만 아니라, 대전컨벤션센터도 함께 이용하면서 작년 박람회에서 문의가 많았던 주차 공간 확보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또한 농기계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형 트랙터 등도 전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축산물 시식행사를 비롯하여 학술 세미나, 우수축산농가 선발 및 축산 OX퀴즈대회, 자선경매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되어 참관객들에 재미를 더하는 한편, 신종인플루엔자와 FTA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축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본다.

본회는 세계적인 축산기자재 행사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대전 국제축산 박람회 행사에서 많은 내·외국인들에게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자 오리고기 시식회를 개최하였으며, 육내에서는 한국오리협회의 사업 소개 및 상담을 위해 상담부스를 운영하였다.

야외부스에서 이뤄진 시식행사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오리 훈제, 로스, 오리소시지, 오리떡갈비 등을 시식한 모든 제품들이 참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판매에 대한 문의도 잦았다.

특히, 오리고기를 시식한 사람들 중 학생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들 중 대부분이 '오리고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여성들도 'TV에서 오리고기가 피부 및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반응을 보이는 등 오리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준비해 갔던 오리마늘지 최신호와 오리요리책자, 기념품(위생장갑)도 준비해 간 물품을 모두 소진할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불고기 시식 행사와 더불어 다투판을 돌려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을 하였고,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역시 돼지고기 및 계란을 이용한 요리들을 전시, 시식을 벌여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유를 이용한 부침개와 가래떡, 단호박 우유 등을 선보여 큰 사랑을 받았다.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가 6회째를 맞으며 국내외 평균 200여 업체가 참가할 정도로 어느 정도 박람회로서 자리를 잡았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박람회 부스배치의 비효율성, 해외업체 및 바이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올해 참가한 194개 업체에서 해외업체는 11개 업체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외국인 바이어들의 참관도 드물었다.

차량 소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축산관련 대규모 행사에서 차량 소독기는 배치가 되지 않았으며, 이는 방역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시장 간 이동 곡선의 불편함, 편의 시설 부족 등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

### 2009대전국제축산박람회 이모저모

▶ 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 개회식에서 진행된 우수축산인 시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표창에는 대한양계협회 차진우 씨, 낙농육우협회 서호원 이사, 대한양돈협회 이경래 전북도협회의 회장, 전국한우협회 전문출 고령 지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대회장상, 우수전시업체 표창, 공로패,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등의 시상이 진행됐다.

● 이번 대전국제축산박람회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방역활동이 진행됐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장 주변에 개장전후 1회씩 매일 2회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개인 위생을 위해 손소독기 6대, 발판소독조 9개를 비치하는 한편 박람회장 이동 경로에 제한을 뒀다. 또한 실내 전시장 입구에는 손소독기와 체온을 체크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차량소독기 미배치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 축산 기자재 123개 업체의 전시관에는 신기종·고 성능의 다양한 축산기자재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축산기자재 업체들은 바이어 상담을 통한 수출 촉진과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 사료 및 동물약품 업체들도 바이어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홍보와 관람객 부스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소독제제 및 백신 등이 관심을 끌었다.

● 축산관련 기관은 축산물 안전 및 방역 등의 동영상 상영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끌었고 관련된 소정의 기념품 등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서 배포한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은 관람객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어 단시간에 동 나기도 했다.

● 축산관련 단체들은 우리 축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 오리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이 준비한 시식회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 다양한 이벤트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박람회에는 참가업체들의 제품을 기증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축산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선 경매행사와 행운의 페널티키, 축산OX 퀴즈 등이 열려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학술행사마다 관람객들이 대성황을 이뤘다. 첫날 개최된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학술행사에는 시작 전부터 축산인들이 자리를 가득 매웠고 마지막까지 경청하는 모습이 연출돼 축산인들의 선진 축산을 향한 의지가 엿보였다.

